전주문화재단, 제2의 도약 선언

출범 10주년 기념 '전주, 문화의 길을 묻다' 기념행사 개최 · 나아갈 방향 비전 위한 토론 진행

전주시를 한국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지역문화지수 1위로 만드는데 앞장서온 (재)전주문화재단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미래 10년을 전주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 등과 함께 준비해, 전주를 대한민국 전통문화중심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전주문화재단은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됐다.

이를 통해 전주의 문화예술 관련 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시민에 대한 문화혜택 지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앞장서왔다.

지난 10년 동안 전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해온 사업은 △문화정보 114, △아시아 명인 네트워크 △전주마당창극 △전통문화조사·기록화 사업 △신진예술가발굴사업 등 214개에 달한다.

또 올해 △전주시 마을조사사업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원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전주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문화의 힘으로 전주를 변화시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전주문화재단은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전주, 문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갖고 '문화동행 세션', '전주100인 세션' 등을 나눠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전주문화재단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문화동행 세션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전주시에서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해 △예술생태계의 지속성 △문화재단과 지속가능발전 △출연기관(단체) 협력 방안 모색 등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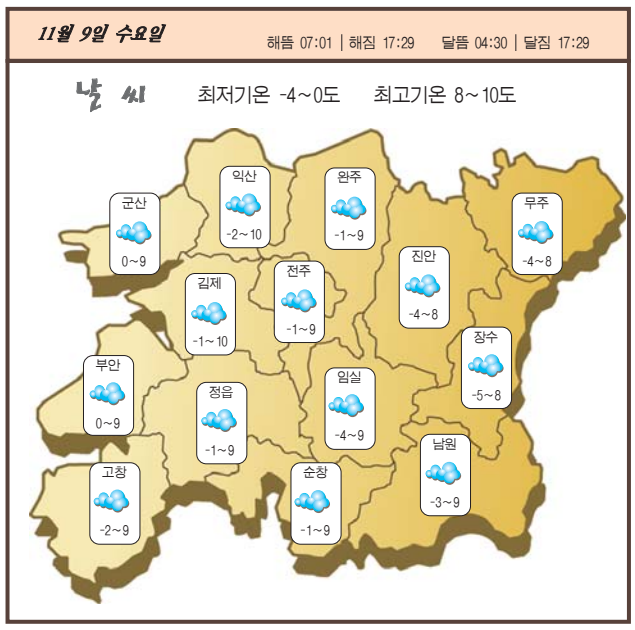
또 '전주100인 세션'에서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문화예술 전문가 등 100인이 모여 △전통문화의 지속가능 발전 △문화도시 전주 △문화로 행복한 전주 △문화계의 지속성 등에 대한 자유로운 제안 등을 통해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이 나가야할 문화의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기념행사에서는 초대 이사장인 장명수 전북대학교 명예총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 전·현직 이사장 등이 참석해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전주문화재단은 지나온 10년을 주춧돌로 삼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걸어갈 10년을 준비할 것"이라며 "문화전문기관으로서 전주시가 문화를 동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앞장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출범한 (재)전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로 전주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들을 지원하는 등 '문화로 일상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전주 만들기'를 주요 목표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 도시공학과 학생들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수상 휩쓸어

행정자치부 장관상 전북도지사상 수상

'삼천동 사람들 -LAG Network-'라는 주제를 발표한 도시공학과 A팀은 대상에 해당하는 '아름드리상'을 수상했고, '원용복 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를 선보인 도시공학과 B팀은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행복상'을 차지했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정부의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수상을 휩쓸었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도시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4개 팀이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주최한 '2016 행복한 공동체 발표 한마당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에서 모두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 전북대 도시공학과 학생팀들은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내는 작품을 선보여 2개 팀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나머지 2개 팀은 전북도지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삼천동 사람들 -LAG Network-'라는 주제를 발표한 도시공학과 A팀은 대상에 해당하는 '아름드리상'을 수상했고, '원용복 마을 이야기'라는 주제를 선보인 도시공학과 B팀은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행복상'을 차지했다.

최고상의 영예를 안은 김예진 학생은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더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난 두 달간 동료들과 직접 발로 뛰며 많은 정보를 체득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이 주변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차기 1금고에 '전북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 각각 선정

내년부터 3년간 각각 시 일반회계 · 기금 등 맡기로

전주시 차기 금고은행이 제1금고에 전북은행, 제2금고에 농협은행으로 각각 결정됐다.

전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8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이 같이 의결했다.

제1금고 은행으로 선정된 전북은행은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구조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을 종합평가한 심사에서 평균 98.73점(총점 1,086.05점)을 획득했다. 농협은행은 평균 94.54(총점 1,039.95)을 받았다.

전북은행은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전주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맡아(2016년 1회 추경 기준 1조 3,912억원) 취급하게 되며, 제2금고인 농협은행은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을 맡아(2016년 기준 약 2,512억원 규모) 예산액을 취급하게 된다.

시는 심의결과 및 금고지정에 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별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은 "시금고가 이번 금고약정 체결로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전주시민 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원광대, 서울국제식품산업전 현장견학

원광대학교는 최근 코엑스 A,B,C,D홀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식품벤처사관학교 이수 학생 20명이 참가해 세계 식품산업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코엑스, 더바이어, 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올해 식품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세계 각국의 이색적인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눈길을 끌었다.

원광대는 LINC사업단 주관으로 식품벤처사관학교를 이수한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각종 프로그램 참관과 함께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식품산업에 대한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BUAN 600th Anniversary
1416-2016
부안 정명 600주년 행복부안! 천년도약!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